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회의실에서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강창일 국회의원의, 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한 '제주4·3 인권 심포지엄'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조발표 등을 듣고 있다. 이날에는 유엔 외교관과 38개 국내·외 협력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미국 심장부서 꺼낸 '4·3 美 책임론'

뉴욕 유엔본부서 심포지엄... 미군정 개입 규명 등 거론 "4·3평화운동, 노벨평화상 추천운동 승화하자" 의견도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에서, 그리고 세계 평화·인권의 중심인 UN본부에서 '제주4·3'의 과거사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이 집중됐다. 제주4·3 학살에서 미군정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데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 역할 문제가 중점 거론된데다 4·3평화운동을 노벨평화상 추천운동으로 승화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강창일 국회의원의, 제주4·3 평화재단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뉴욕 유엔본부 회의실에서 '제주4·3 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제주4·3의 진실, 책임 그리고 화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유엔 외교관과 38개 국내·외 협력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상황을 이뤘다.

세계적 석학들과 제주4·3 유족의 발표를 통해 미국의 책임문제와 함께 4·3의 정신과 진상규명운동 과정을 과거사 문제 해결의 새로운 세계적 모델로 제시했다.

이날 기조발표에 나선 강우일 주교(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는 "제주4·3은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이 저지른 인권과 인간 생명에 대한 대대적인 위반이자 범죄였다"며 "처형과 학살을 한국경찰과 군인이 저질렀지만 정책을 수립하고 명령을 이행한 이들은 미군 지도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당국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해 주기를 바라며 유엔의 다른 회원국들도 보편적 인권을 위한 연대의 표시로 이 잊혀진 역사에 대해 관심과 공감을 표명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현대사 연구의 저명한 학자인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학교 석좌교수는 "미국인 대다수가 2차대전 종전 후의 한국상황과 무관한 방관자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일제에 부여했던 한국인들을 지원해 3년간 한국 군부와 군정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당시 제주도민 인구 10분의 1에 해당하는 3만명 가량을 학살하기에 이르렀다"며 "미국의 실질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는 한국전쟁 당시 6살의 어린 나이로 제주도에서 피난생활을 했지만 서북청년단 가족의 일원이었다고 고백하며 "사청이 제주에서 벌인 만행에 대해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4·3 당시 북촌 학살사건의 유족인 고완순 할머니가 4·3을 증언했으며, 제주지역 고교생 정현서(대정고)군과 강혜민(신성여고)양이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주민 삶 바꾸는 지방분권의 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자치분권·균형발전의 핵심 자치경찰제 지역맞춤·주민밀착 치안서비스 제공

(1) 지역을 키운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중앙부처가 갖고 있던 각종 권한을 지역 스스로 판단해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빠르고 정확하게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은 주민 중심의 치안서비스의 시작을 의미한다. 결국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역의 권한과 자율성을 키우는 양대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전국의 17개 시·도, 226개의 시·군·구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기능의 획기적 이양을 통한 지방사무 확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현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주도하는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지방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시킴으로써, 관련 권한을 지방에 한꺼번에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하나의 법률에 여러 법률이 포함된 형태에서 국회에서 이를 담당할 상임위원회를 찾지 못해 제정이 지속적으로 무산돼 왔다. 그러나 지난 2018년 5월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함으로써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에서의 수행이 보다 적합한 66개 법률의 571개 중앙부처 권한이 법안에 포함돼 지방자치단체에 넘어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권한이양은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현 정부의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수단"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과 경찰 민주화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여성 청소년·교통·생활안전 등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치안 수요가 높아지고, 민생치안이나 기초질서 유지에 대한 주민의식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조직이 제 역할을 못하는 지역맞춤형·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또 일원화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던 지나친 권력집중 문제를 경찰력 분산을 통한 해소할 수 있어 도입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상황이다.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한 경찰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지역 밀착 치안활동 조직인 지구대·파출소의 자치경찰 이관 ▷정치적 중립장치로서 시·도 경찰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긴급한 사건·사고 현장에서의 초동조치권 부여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단계적 도입 등이다.

이러한 자치경찰제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우선,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 주민에 대한 반응성이 제고된다는 점이다. 또 2종의 두터운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갈수록 복잡해지고 광역화되는 범죄 등 치안환경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서비스 수혜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사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고, 이는 경찰제도의 민주성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효과로 꼽을 수 있다.

자치경찰제의 대표적인 국내 사례로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를 들 수 있는데, 도로교통·생활안전·지역경비 등 50여개의 사무 수행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주민 대응성이 제고되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신형 공동체재단>

부처별 지방이양 법률 및 사무수

부처	법률	사무수	부처	법률	사무수	부처	법률	사무수	부처	법률	사무수
합계	66	571	산림청	2	33	복지부	5	15	식약처	1	3
해수부	7	135	고용부	2	27	교육부	2	15	농림부	2	2
국토부	12	120	문화부	3	26	중기부	3	11	과기부	1	2
환경부	11	72	산업부	4	22	경찰청	1	11	국방부	1	1
여가부	1	51	행안부	6	20	기재부	1	4	소방청	1	1

서귀포 하예항 어촌뉴딜 사업 시동

기본·실시설계용역 보고회

서귀포시 하예항에 기반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서귀포시 하예항 어촌뉴딜300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귀포시는 '하예항 어촌뉴딜300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와 3차 지역협의체 회의를 지난 19일 하예동어촌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하예항에 2020년까지 총 사업비 116억원을 투입해 방파제 외곽시설 및 안전시설

보강, 어업인복지회관 조성, 진항등대 탐방로 및 어항접근도로 정비, 해양레저 체험공간 및 어촌·어항재생센터 등을 갖춘 사업이다.

시는 사업의 취지와 목표 등을 설명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협의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미숙기자

"교통요금 조정 의견수렴을" 강성민, 조례 개정안 발의

버스·택시요금 등 교통요금의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전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한 도민 의견 수렴 선행 제도가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의원경제포럼인 제주

민생경제포럼 정책간사인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은 소속 회원 15명과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통요금의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전 공청회, 토론회를 통한 도민 의견 수렴 후 도의회 의원

청취(안 제8조제1항) ▷관계 공무원 및 관계인 참석을 통한 의견 청취(안 제2조제2항) 등이 포함됐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0월 정책보도자료를 통해 물가대책위 심의가 통과되리라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제주금연지원센터 금연지원서비스 안내 "내가 과연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

여성, 대학생, 위기청소년, 장애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 여성** 만19세 이상의 성인 흡연자(임산부 포함)
- 위기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만9~24세 청소년 흡연자
- 대학생**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 중 흡연자(대학원생 포함)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장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흡연자
-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소규모사업장(300인 미만)에 근무하는 흡연근로자

이용안내
평일 월~금, 오전9시~오후6시

장소
제주도 내 대상자가 있는 곳 어디든 찾아가합니다.

신청 : 방문, 전화, 이메일, 문자, SNS

지원
상담사와의 1:1 맞춤형 상담과 금연보조제 제공, 등록 후 6개월간 사후관리

문의
064-758-9030, 010-8814-9030

4박5일 무료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참가자 모집

- 대상**
-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 2회 이상의 금연 실패 경험자
- 흡연관련 질병(폐암, 후두암, 협심증, 뇌졸중 등) 진단 후 흡연 지속자
- 날짜**
- 월 1회이상, 수요일~일요일(요일 고정)
- 2019년 6월 26일~30일 / 7월 10일~14일 / 7월 24일~28일 / 7월 31일~8월 4일 / 8월 21일~25일 / 8월 28일~9월 1일
*상기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시모집입니다.
- 캠프특전**
- 흡연관련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건강검진(폐CT 포함)
- 금연약물요법(니코틴패치, 캄, 경구용 약물 등) 제공
- 생활한복, 세면도구 등 개인용품 제공
- 전문적 금연치료와 유지를 위한 개별심리상담과 집단심리상담 제공
- 금연 후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및 영양상담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제주시 서광로 175 아세아빌딩 5층 제주금연지원센터
- 전 화: 064-758-9030/ 010-3068-9030
*회기당 선착순 10명 제한입니다.

일 정 표 (예)					
요일/시간	1일차(수)	2일차(목)	3일차(금)	4일차(토)	5일차(일)
08:00-08:30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조식/ 비이탈 체크/	조식/ 비이탈 체크/ 전문의회진	조식/ 비이탈 체크/ 전문의회진	조식 / 비이탈 체크
08:30-09:30		전문의 상담 및 약 처방	담배가 주는 많은 것들	그룹동기 강화상담Ⅳ	시후관리 안내 및 개별 내소 예약 상담, 보조제 처방
09:30-10:00		금연에도 약이 있나요?			나의 몸을 건강하게
10:00-10:30			요기명상/ 세로토닌 워킹/ 힐링테라피	수료식	
10:30-11:00		중식 및 휴식			중식 및 휴식
11:00-11:30			건강검진 & 심리평가	금연캠프 노하우 공유 (캠프 수료자)	
11:30-12:00		나의 체력 알아보기			금연, 일상에서 관리하기
12:00-14:00			입소식 및 오리엔테이션	휴식	
14:00-14:30		맛있는 금연 생활			금연, 일상에서 관리하기
14:30-15:00			금연을 한다는 것	휴식	
15:00-15:30	스트레스관리	휴식			
15:30-16:00			금연 일상에서 관리하기	휴식	
16:00-16:30	금연 일상에서 관리하기	휴식			
16:30-17:30			스트레스관리	휴식	
17:30-18:30	중식 및 휴식	중식 및 휴식			중식 및 휴식
18:30-20:00	그룹동기 강화상담Ⅰ	그룹동기 강화상담Ⅱ	그룹동기 강화상담Ⅲ	나의 새로운 삶 응원하기	
20:00~	개인 휴식 및 취침				

*프로그램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